

김 한 광주은행장

“지역은행 자존심 걸고 市금고 유치”

배드민턴팀 창단·수목화 공모전 개최 등 예술·체육 지원 통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김한 광주은행장이 26일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손익을 떠나 광주시금고를 반드시 유치할 것을 밝혔다. 또한 차별화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과 전국 최대규모의 수목화 공모전 개최 방침도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의 자존심을 걸고 광주시금고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시금고 재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최악의 금융환경인 저금리 기조에서 시금고 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하지만 그 손실 비용만큼 광주시에 세금을 낸다는 생각으로 시금고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은행은 지난 4년여 동안 광주시와의 각종 협력사업에 100억원을 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마찬가지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많은 지원금을 내야 한다”며 “광주시와 협의해서 시금고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지난해 말 폐지한 역도팀을 대신 할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밝혔다.

김 행장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지역내 배드민턴 인구나 JB금융지주 산하인 전북은행의 여자배드민턴 팀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남자 배드민턴 팀 창단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8월말이나 9월 초 실업팀 창단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체육회 등과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실업팀 창단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김 행장은 예술분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수목화 공모전 개최 방침도 밝혔다.

김 행장은 “2018년 전라도가 정도 1000년을 맞는데 남도의 맛과 멋이 그 바탕에 있다”며 “전국최대 규모의 광주수목화 공모전을 만들어 한국화 분야를 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직접 통화환율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의 대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점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광주은행이라는 이름과 지역민에 부끄럽지 않은 지방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15%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으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더 좋은 은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랑봉사단을 만들어 임직원 전체가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단기적인 금전적 기부보다는 지역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위주로 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간 금융박물관 금융교육을 어린이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점 1층 원더랜드 체험관을 무료 개관해 3개월간 1만7000여명의 관람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아동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아울러 메세나 나눔활동으로 지역 어린이 30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로 유명 어린이 뮤지컬을 본점에서 무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라운드 더 월드(세계여행)문화체험관을 개방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7.34 (+15.02)
- ↓ 금리 (국고채 3년) 1.22% (-0.01)
- ↑ 코스닥 705.40 (+0.44)
- ↓ 환율 (USD) 1134.90원 (-2.10)



전홍욱 관세청장이 26일 오후 담양항과 명진식품을 방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관세청장 광주 방문 ‘현장 소통’

전홍욱 관세청장은 26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내 수출입기업을 방문해 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전 청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강과 ‘톡 터놓고 Talk *’에서 평소 현장 근무자 등이 느끼거나 바라는 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공직생활 중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주제로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얘기를 나누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350만 달러 수출계약 등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전남 담양군 소재 담양항과 명진식품을 방문,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토의하였다. 이와함께 직원들에게 지역 수출기업이 FTA로 인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세관의 역할을 집중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과거 관행에 의해 용인되었던 관공의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에 부응하는 공직 자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터키 이스탄불 공화 테러’, ‘프랑스 니스테라’ 등 잇단 국제적인 테러 발생으로 국내 테러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해안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본부세관에서 안보위해물품 차단 등 테러방지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효성 2분기 영업이익 3310억원...분기 최대 실적

스판덱스·타이어코트 등 전 사업부문에서 호조세 지속

효성은 올해 2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335823억원, 영업이익 331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것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효성은 설명했다. 효성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세 분기 만에 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효성은 “사상 최초로 분기 3000억원대, 분기 5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냈다”며 “스판덱스, 타이어코트 등 세계 1위 제품을 보유한 섬유·산업자재 부문을 비롯해 중공업·화학 등 전 사업 부문에서 호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섬유부문에서는 스판덱스가 경쟁이 격화한 글로벌 시장에서 고수익 제품 판매비중 확대 등으로 선전된 덕분에 매출 5158억원, 영업이익 925억원을 기록했다.

산업자재는 전년 동기 335억원이던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 736억원으로 급증했다. 타이어코트, 시트벨트, 에어백용 원사 등의 판매 확대가 주효했다.

중공업 부문과 화학 부문도 각각 842억원과 39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건설부문도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어 18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하반기에도 수도권 분양확대로 영업이익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효성은 기대했다. /연합뉴스

가격 급등 마늘·배추, 수급대책 시행

가뭄과 폭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른 마늘과 고랭지 배추 등에 대해 정부가 수급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관계 기관과 ‘16년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 들어 깎마늘 1kg당 소매 가격은 1만1328원으로 평년(1kg당 7417원)보다 53% 상승했다.

지난해 가뭄 등으로 마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이 지 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추는 이달 상·중순 주요 산지인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평년보다 23.5% 오른 포기당 2271원이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는 작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와 무가 8~9월 작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안 우려가 크진 않지만 국지성 기상악화로 가격 급등락이 잦은 품목인 만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은값 내년에도 강세

올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고공행진을 펼친 금·은값이 내년에도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상품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강세를 보인 건 단연 금과 은 등 귀금속이다. 상품별로 연초 대비 가격 변동률을 보면 22일 현재 은은 42.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아연(39.5%), 원당(28.5%), 동육(25.9%), 금(24.8%), 난방유(23.3%)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금 가격은 2011년 9월5일 온스당 189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에 작년 12월 1045달러까지 주저앉았다가 올해 다시 반등했다. 통상 금값보다 큰 변동을 보이는 은값은 현재 온스당 19.79~20달러 수준이다.

귀금속 값은 최근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 광물 생산 둔화에 따른 구조적인 공급부족 우려도 가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쌈강 다슬기 성업중!!

쌈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다슬기 요리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조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쌈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산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장정리
 Step 2. 단열반이스카팅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 난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9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